

VII. 유럽 신석기 시대의 다양성 (Cultural Diversity of European Neolithic Period)

(1) 홍적세의 종말과 중석기 시대

- 후빙기 이후 빙하의 후퇴로 인하여 서식지역 확대
: 들소 (aurochs), 사슴 (red deer), 멧돼지 (wild boar)와 같이 순화되기 쉬운 새로운 동물종이 등장
- 해안 및 하천 일대의 적응 양상
: 후빙기 이후 해안선이 내륙 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어류와 패류 자원 이용하는 중석기 (Mesolithic) 단계 진입
- 굴곡진 지형과 이에 따른 다양한 식생 및 토양대를 특징으로 함
: 발칸, 알프스,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대륙 지역과 지중해 지역으로 구분 (Cardial Pottery vs. Linear Pottery)
- 다양한 해양 및 수산 자원을 활용하고 정착 생활이 시작됨
예) Franchthi Cave (Greece), Duvensee (Germany), Star Carr (Englan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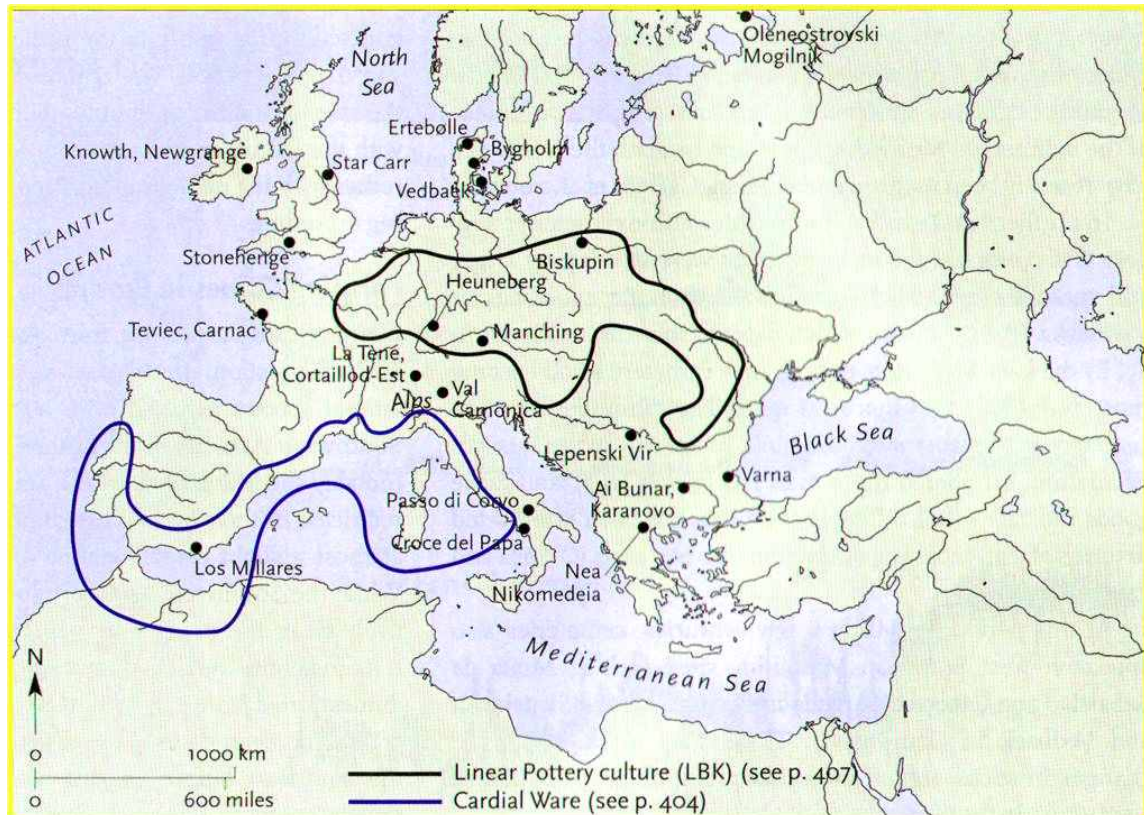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. 후빙기의 유럽 신석기 문화권 : 지중해 일대는 조개껍질로 문양을 새긴 압인문 토기 (Cardial Pottery)가 주종을 이루고 중부 내륙 지역의 경우는 자돌구로 선 모양의 문양을 새긴 침선문 토기 (Linear Pottery)가 분포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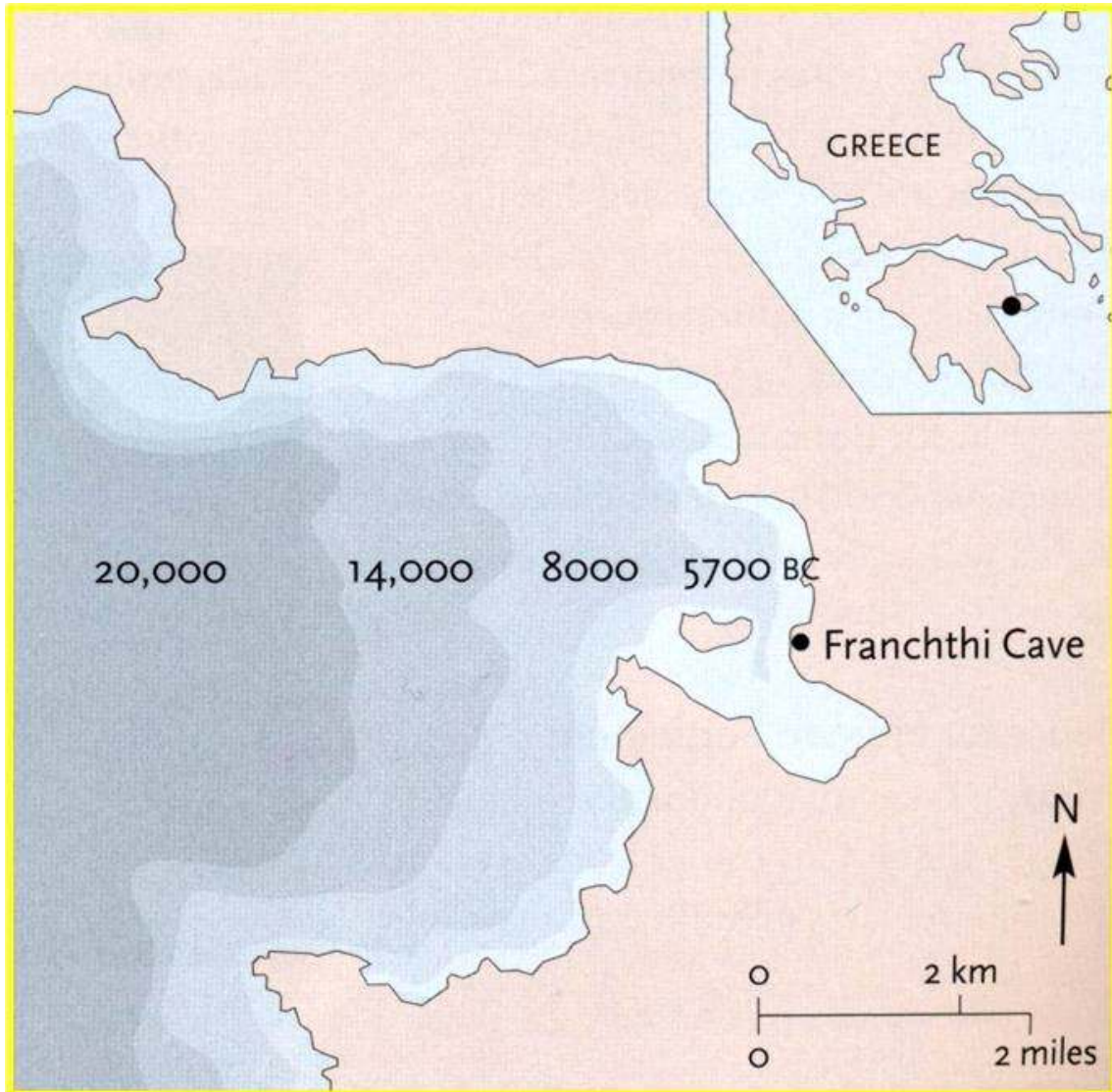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. 리스 테살로니아 지역의 프랑크타이 동굴: 홍적세 최말기부터 지속적인 기온 상승과 함께 해수면이 육지쪽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해양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동굴 퇴적층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잘 나타남



그림 3 . 스타 카 유적의 발굴 장면 : 영국 동북부 해안가에 위치한 스타 카 유적은 물에 침수된 뿔층 내에서 다양한 동식물 유체가 발견되었으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거용 벌목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서 중석기 단계에 이미 초보적인 정착 생활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 줌

- 묘제가 보편화 되고 사회 계층화 및 복잡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
예) Oleneostrovski Mogilnik (Russia), Moita da Sebastião (Portugal), Skateholm (Sweden)

- 지역 차 만큼이나 다양한 시기 차이를 보이는 농경의 확산
: 7,000 BC 경 유럽 동남부에 최초로 농경이 실시되고 이후 지중해와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4,000 BC 경에는 유럽 전 지역에 농경 정착

- 농경과 함께 중동으로부터의 이주민이 유럽을 전면적으로 대체했는지 아니면 원주민이 농경 기술만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음
: mDNA 분석에 의하면 후기 구석기 단계 때 유럽을 점유했던 원주민이 농경 기술만을 채택한 채 지속적으로 유럽에 점유했던 것으로 보이지만, Y 염색체 분석에 의하면 인구가 전면적으로 대체된 결과가 나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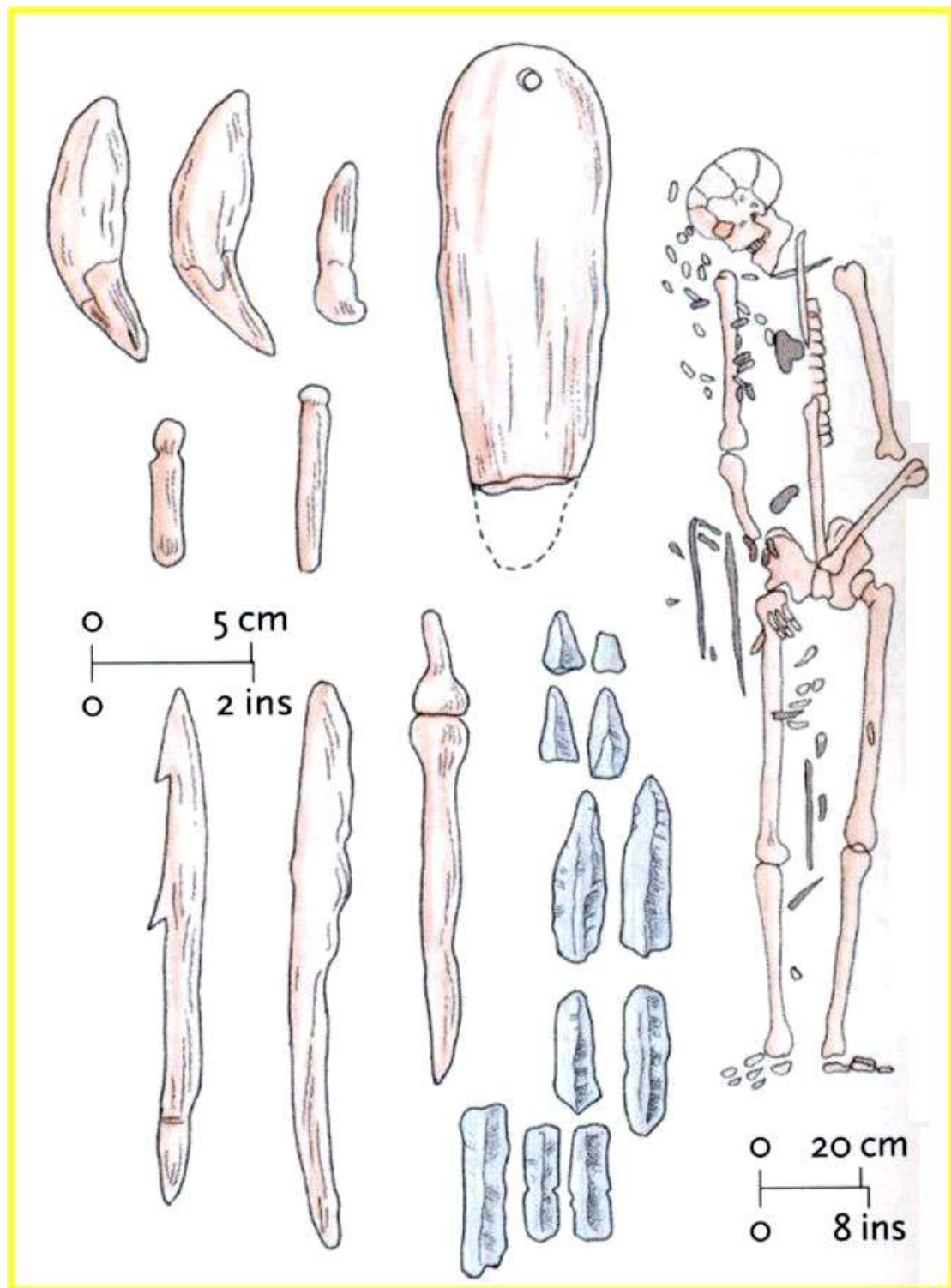


그림 4 . 러시아 올레뇨스트로프스키 모길니크 고분군: 가장 오래된 중석기 시대 고분으로서, 7,000 BC 경의 연대에 해당하는 공동 묘지이며 400 여기 이상의 개별적 매장 시설이 확인되었음. 동물 모양의 조각품과 곤봉 및 도끼류와 같은 유물이 다양하게 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석기 시대에 이미 사회적인 복잡도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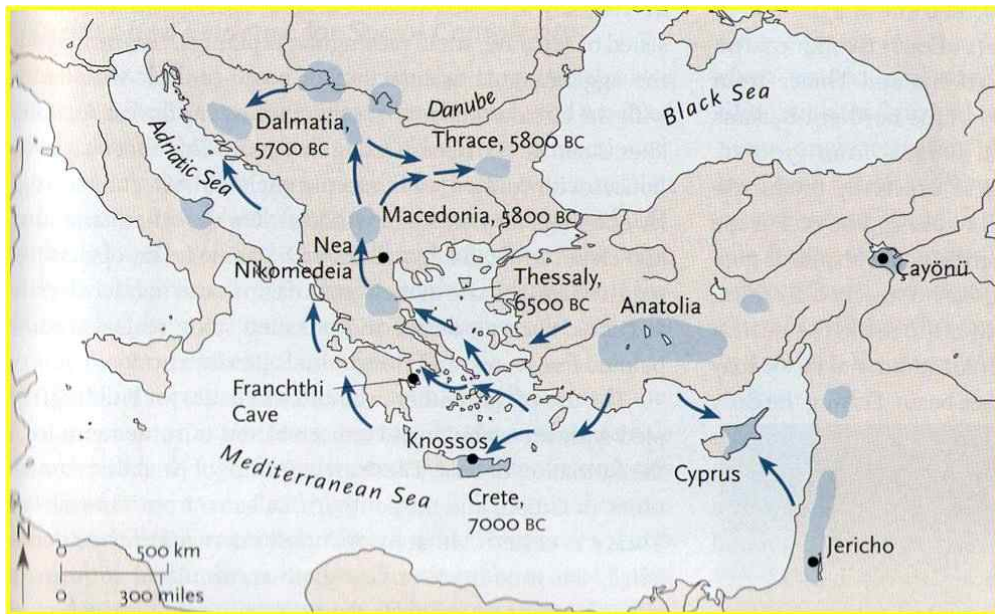


그림 5 . 중동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유럽으로의 농경 전파 모식도 : 사이프러스 섬 일대에 가장 먼저 농경이 확산되고 에게 해 일대의 다양한 섬을 징검다리 건너듯이 인구가 확산되면서 농경이 전파 됨. 발칸 반도에 최초로 농경이 진입하는 시기는 약 7,000 BC이며 이후 트라키아, 마케도니아, 달마시아 지역으로의 확산은 약 5,500 BC까지 진행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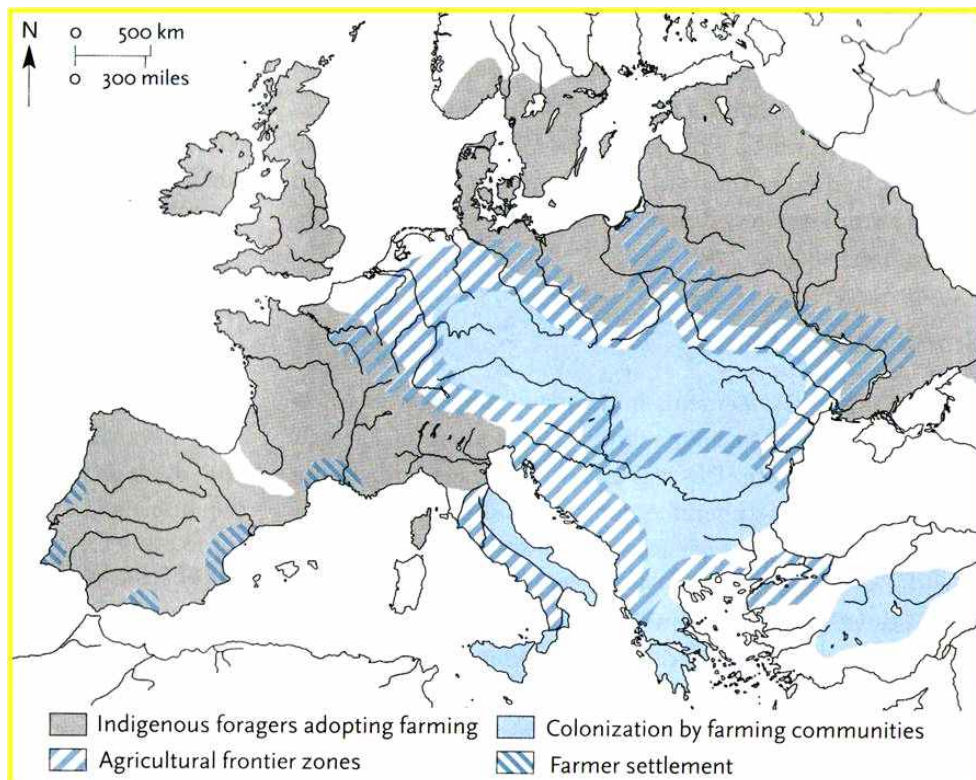


그림 6 . 유럽 내 농경의 확산 : 아나톨리아에서 유럽 본토로 이주한 농경민은 유럽 동남부에서 중부 유럽에 걸쳐 분포하면서 농경을 확산시키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 및 프랑스 일부의 해안 적층 수렵 채집인의 경우는 외적인 요인 없이 자체적으로 농경을 이룩한 것으로 보여짐

(3) 유럽 동남부의 신석기 시대

- 그리스 동부 테살리아 지방에서 최초로 시작 (6,500 BC)
: 아나톨리아에서 해로를 거쳐 테살리아 지방으로 이주한 후 북부의 마케도니아, 트라키아 (5,800 BC)로 퍼져 나가고 이후 달마시아 지역 (5,700 BC)까지 확대 됨
-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이는 소규모 집산지 형태의 취락 구조
: Nea Nikomedeia (Greece) 유적의 경우 아나톨리아와 유사한 진흙 벽돌을 이용한 장방형 주거지가 3단계에 걸쳐서 각기 다른 수준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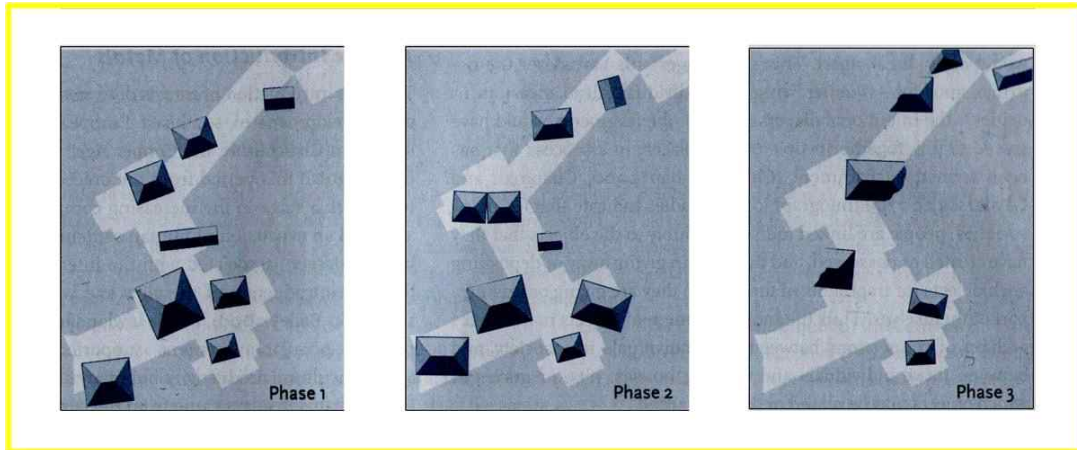


그림 7 . 그리스 네아 니코메데이아 유적의 취락 분포 : : 목재의 기반을 가진 직사각형 주거지가 1기부터 3기까지 거의 같은 규모를 유지한 채 분포하고 있음. 유적 범위 내에 주거지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대략 50기의 주거지에 250여명의 인구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됨

- 취락 분구 (mound/ tell)의 형성
: 진흙 벽돌로 지은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, 다세대에 걸쳐서 거주 장소가 꾸준히 유지되어 오는 전통이 있음 (예: 불가리아의 Karanovo 유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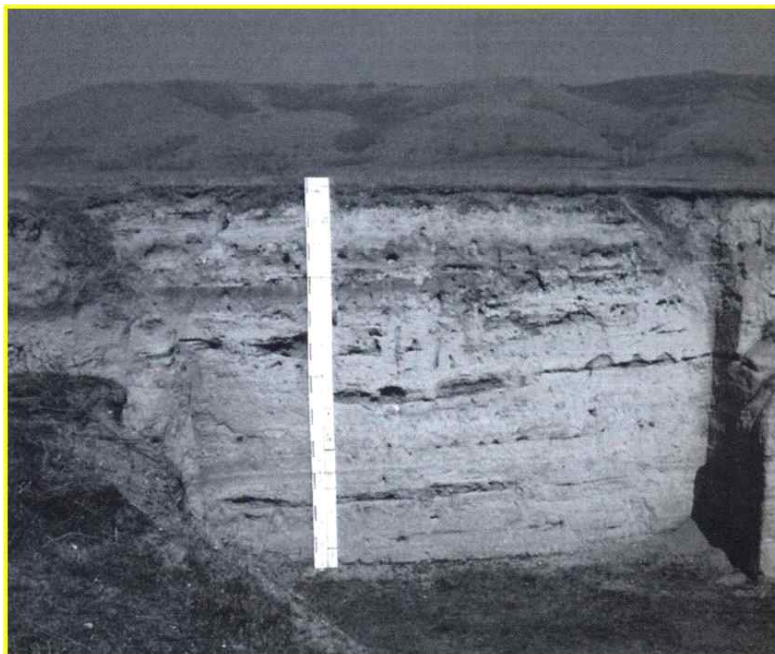


그림 8 . 불가리아 카라노바 유적에서 드러난 대규모 취락 분구: 약 12m에 달하는 두터운 퇴적층 내에는 점토 벽돌로 만든 주거지가 짓이겨져 퇴적층으로 발달한 흔적이 잘 남아 있음.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한 지점을 지속적으로 점거함 흔적은 다른 유럽 지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발칸 지역 신석기 주거지만의 특징에 해당

- 채문 토기와 점토제 인물상을 특징으로 함

: 여성 혹은 성별이 불분명한 표현이 대부분이고 의도적으로 파손된 채 발견되기도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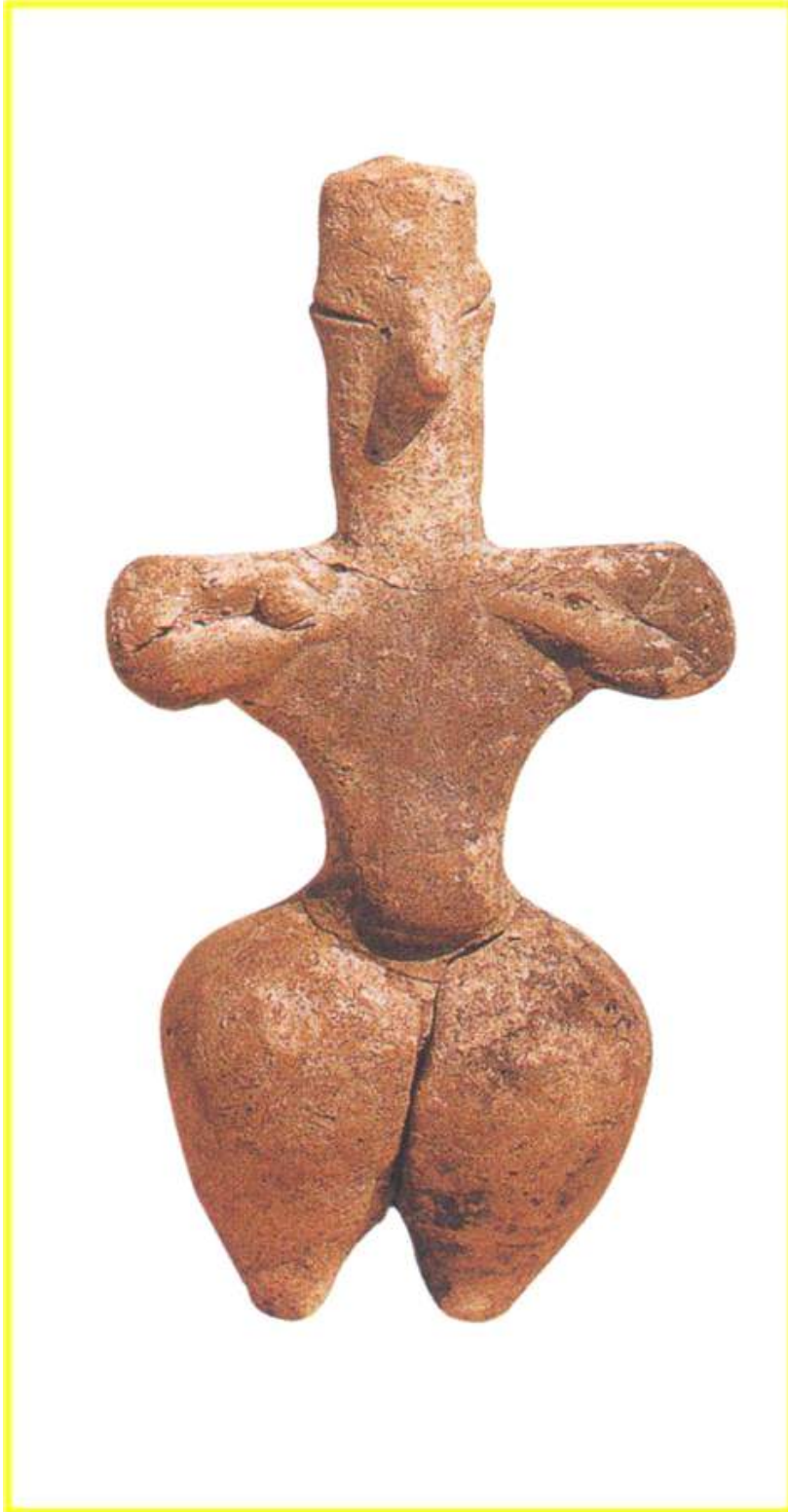


그림 9 .리스 네아
니코메데이아 유적
에서 출토 된 토제
인물상: 발칸 지역
신석기의 대표적인
물질 문화인 토제
인물상의 경우 일반
적으로 여성성을 강
조하는 이미지가 대
부분이기 때문에 모
계 신앙의 표현에
해당한다는 주장이
있기도 함. 최근에는
이러한 인물상이 사
망한 자를 추도하기
위한 기념물적인 상
징으로 사용되었을
것이라는 추측도 제
시됨.

- 약 5,000 BC 이후 발칸 지역 농경 정착 사회의 변화

1) 발칸 일대 신석기 문화와 동일한 요소가 내륙 지역의 헝가리와 루마니아 남서부 일대에서까지 나타나기 시작함

: 인구 집중 빈도의 증가 및 개간 작업 (plowing)의 도입으로 인한 농경 지역 확대

2) 금속기의 수용 및 수공예 기법의 발달과 위세품의 증가 (순동 시대의 개시)

: 고온에서 소성할 수 있는 요지의 발달과 함께 기벽이 얇은 특수용 토기가 등장하고 구리와 금 세공품의 수준도 발달하게 됨

3)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공동묘지 형태가 지속되며 부장품의 수준이 극도로 화려해 짐

예) Varna (Bulgaria)



그림 10 . 구리와 순금제 부장품으로 가득찬 불가리아의 바르나 집단 토광묘지 : 도굴되지 않은 무덤수만 약 21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의 공동묘지로 각 토광마다 부장품의 수준은 각기 다름. 일반적으로 무기 및 도구류는 구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시신의 머리맡과 무릎의 슬개골 및 흉골에는 순금제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음. 특히하게 남성의 생식기에 부착한 흔적이 있는 장신구가 발견되기도 하였음

4) 원자재의 공급 수준 증가로 인한 자원 개발 및 교역의 발달

: 구리 광산 및 각종 석재의 교역 흔적이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음

(4) 지중해 유럽의 신석기 시대

- 약 6,000 BC 경에 Tavoliere (Italy) 지역에서 순화종이 발생하기 시작함
- : 중동지역과 유사한 기후대, 취락분구는 존재하지 않음, 核子를 두른 周構形 주거지 및 연회용 공동 노지를 보유한 취락군 형성
- 예) Passo di Corvo (Ital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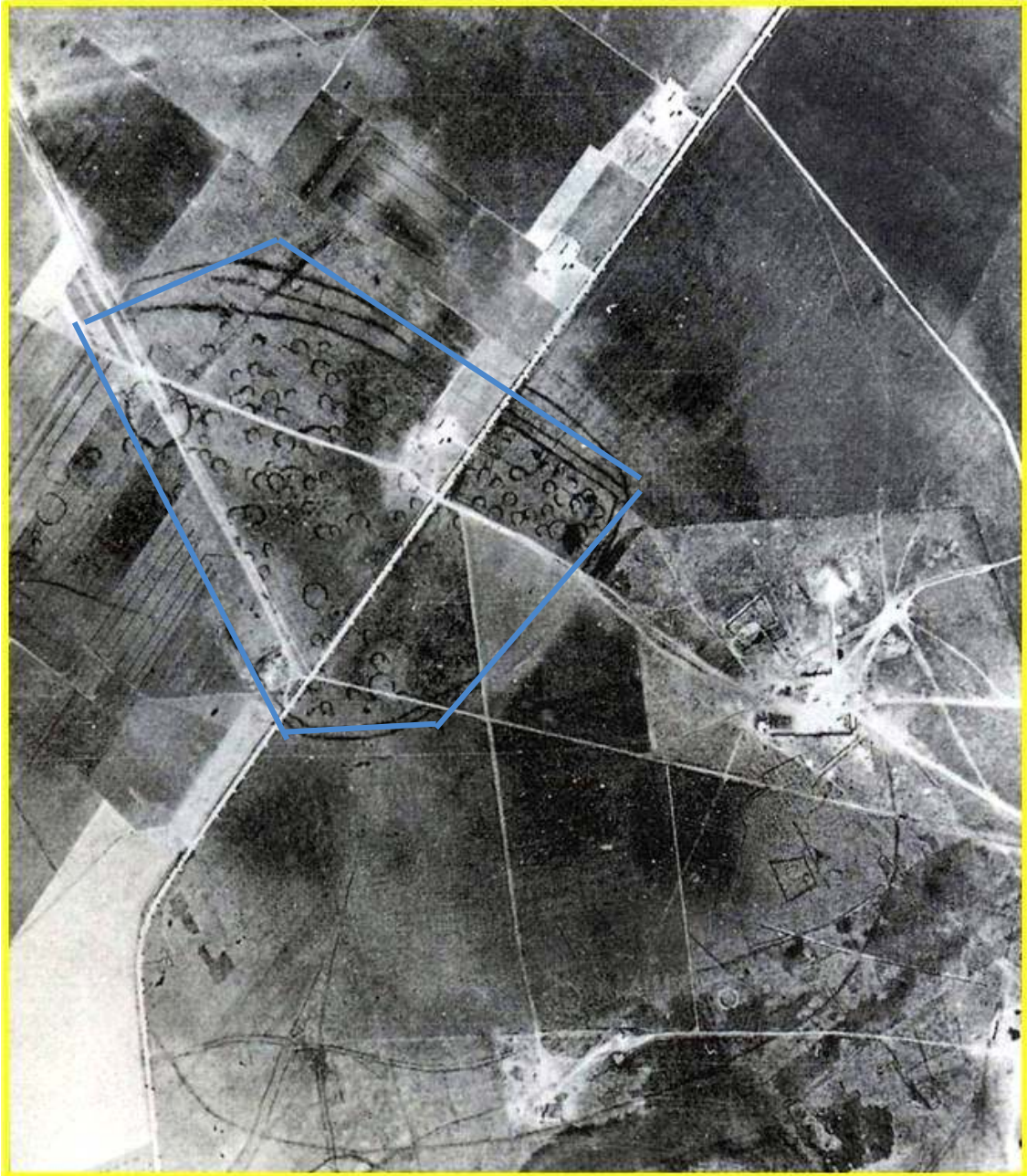


그림 16. 이태리 파소 디 코르보 신석기 유적의 항공사진 : C자형의 주구를 둘러친 개별 주거지가 약 90정도 몰려있는 해자형 취락군의 전형적인 예로서, 아드리아 해 인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 해당함.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남부 이태리와 시실리 일대까지 널리 등장하는데, 농경의 요소가 중동 지역에서 지중해 지역을 통해서 현지 중석기인 집단에게서 파급된 예로 해석할 수 있음

- 이탈리아 및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경의 흔적과 중석기의 흔적이 뚜렷게 구별되어서 분포함

: 在地 수렵 채집인이 토기나 순화종과 같은 농경의 요소를 주변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고 (약 6,000- 5,000 BC), 이 지역의 농경 발생은 대부분 충적대지 분포지역에 한정되고 있음

예) Grotta dell'Uzzo (Sicily, Italy), Grotte Gazel (France), Abri Jean-Cros (France), Leucate (France), La Draga (France)

- 압인문 토기 (Cardial Pottery)의 제작 (6,000 BC)

: 조가비를 사용 해서 정교하게 제작되었음. 신석기 문화 요소의 해양 전파 근거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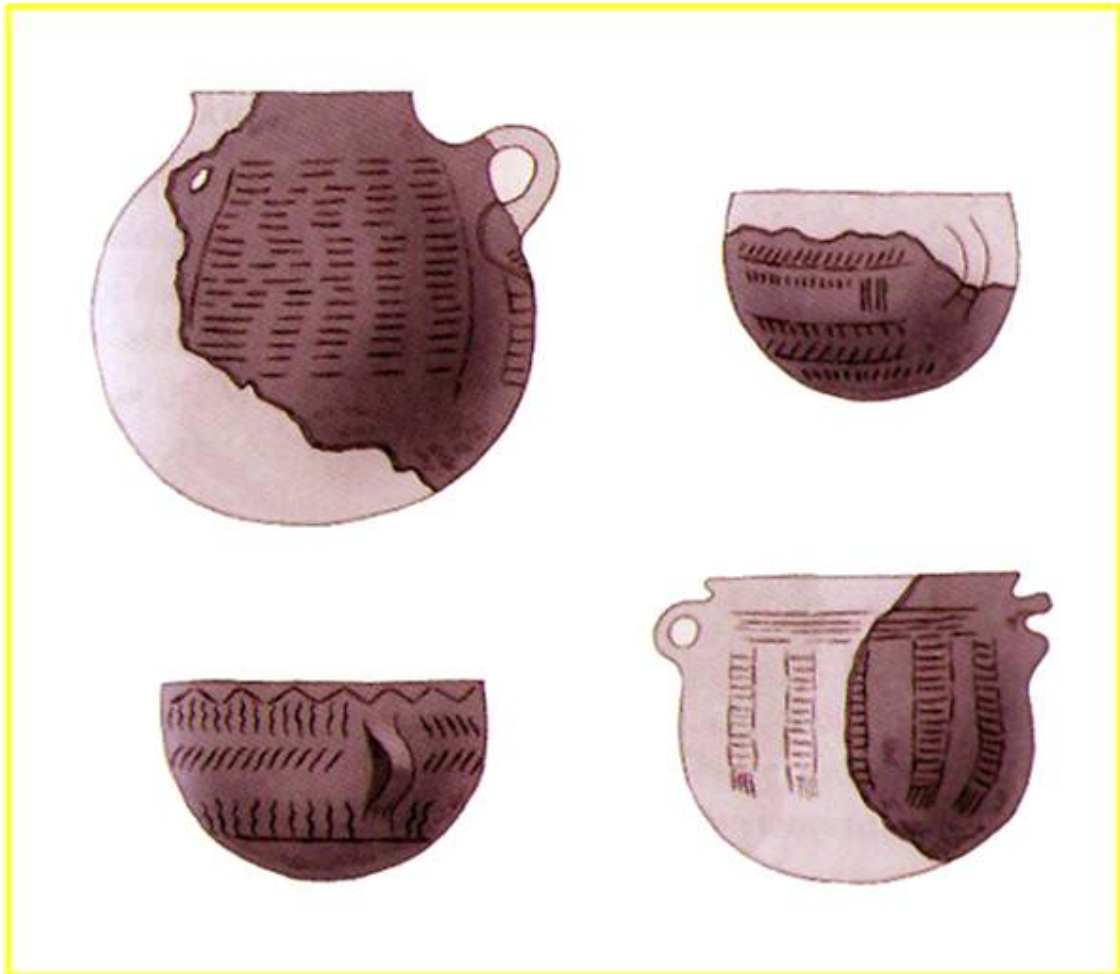


그림 12. 압인문 토기의 다양한 형식 : 조가비 (Cardium)의 주름진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정교한 시문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형이 등장함.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약 5,600 BC 경이지만 이전에 조가비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 압인문 토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토기와 농경의 해양 전파가 약 6,000 BC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는게 타당한 견해임

- 도서 지역에 영구적인 인구 정착이 개시되고 내륙과의 빈번한 교류 발생
예) Sardegna (Italy), Malta, Corsica (France)

- 이베리아 반도 지역 내 해양 전파 신석기 집단의 간헐적 정착 (6,000 BC)
: 소규모의 신석기 촌락과 압인문 토기가 들판에 분포함,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방
식의 전파 (leap-frog style)
예) Chaves (Spain), Coveta del'Or (Spain), Carigouela de Pinar (Spain)

-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대륙까지 신석기 문화가 침투, 전파되면서 4,500 BC 이
후가 되면 순동 제작이 시작되고 (이베리아의 경우 대략 3,000 BC) 대규모 분묘가
형성되는 등의 사회적 복잡화가 진전되기 시작함

예) St. Michel-du-Touch (세굴장의 증거, France), Los Millares ("Tholos" 등
장, Spain), Vila Nova de San Pedro (거석 문화의 효시, Portugal)



그림 13. 스페인 로스 미야레스 대형 분묘 유적의 단면도 : 건조 지역의 거석들을 축조해서 벽을 만
들고 가운데에 현실을 배치한 대규모의 봉문으로서, 벽돌이나 돌을 사용해서 벌집 (beehive) 과 유사
한 弓窿 狀 지붕을 만들어 나가는 tholos 무덤의 효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. 이러한 형태의 무덤
은 시리아나 그리스 지역에서도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지만 이베리아 지역과의 문화적 관계는 거의 없
는 수준임

(5) 중부 유럽의 침선문 토기 문화

- 발칸에서 유럽 내륙으로의 두번째 신석기 전파 루트

: 발칸에서 카르파치아 산맥을 거쳐서 다뉴브 계곡과 중부 유럽으로 농경 확산

- 약 7,000 BC 경에 기존 중석기 수렵 채집인의 점진적 농경 수용 및 농경민의 자체 점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이후 약 6,000 BC 경에 취락 분구 (tell)로 발달하게 됨

예) Lepenski Vir (Serbia)



그림 14. 세르비아의 레핀스키 비르 유적 : 다뉴브 강변의 중석기 유적으로서 사다리꼴 모양의 주 거지와 한 가운데 만들어진 원형 노지를 특징으로 함. 사람과 물고기를 합성해서 형상화 한 석회암 제 조각품은 노지 바로 옆에서 출토되었음



그림 14-2.세르비아의 레핀스키 비르 유적의 석회암제 토제품